



“행복한 기부에 참여하세요”

후원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행복 기부 릴레이’ 운동을 펼쳐 푸드마켓 활성화를 꾀한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물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계속된 경제한파로 차가워진 제주를 기부문화 활성화로 통해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보고자 ‘행복 기부 릴레이’ 운동을 마련했다.

‘행복 기부 릴레이’는 한 명의 기부자가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고, 그렇게 참여한 기부자가 다시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해 가는 자율적이면서도 기부자의 적극성이 발휘되는 기부자 참여형 기부운동이다.

기부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어지는 기부운동인 ‘행복 기부 릴레이’는 물품의 양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기부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동시에 기부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현재 기부를 하고 있는 지인의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소한 기부경험 공유를 통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기부문화의 확산이 ‘행복 기부 릴레이’의 가장 큰 목표이다.

매주 1명의 기부자와 기부업체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달 중 사랑나눔 푸드마켓에서 첫번째 참여자의 기부물품 전달식을 갖는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이달부터 ‘행복기부 릴레이’ 시행...푸드마켓 활성화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가운데)이 푸드마켓에 성금을 기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푸드마켓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푸드마켓은 ‘행복 기부 릴레이’ 외에 일반 CMS 후원 회원도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CMS회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됨으로써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는 회원이다. 110여명이 5000원과 1만원씩 후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이후 9개월 동안 1만1800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다녀간 푸드마켓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기에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정기적인 기부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푸드마켓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장터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이다. 개장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5개 품목을 지원하다 운영난으로 인해 부득이 운영방식을 변경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3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으며, 매달 12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 축산유통=육류 288kg, 가래떡 190kg ▲산방 비곡=쌀 60kg ▲서문식품=두부 384kg ▲김지원=김치 60kg ▲탐라상사=마나나 5상자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쌀 200kg ▲현민철=쌀 500kg ▲손효익=음료수 1.5l 21병 ▲현영심=오렌지 8상자 ▲임분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올해 562명 혜택

올해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가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아동도 지난해 269명에서 323명이 증가한 562명으로 늘었다.

재활치료 사업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한국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 손기욱언어치료센터 등 모두 6곳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곳이 많아진 것.

특히 장애아 가족의 이용편의를 위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도심에 치료교실 ‘파란나라’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3월 제주시청 주변에 전문치료실 ‘해밀치료교육센터’를 열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다자녀 가구보육료지원 확대
시설 탐방성안복지재단
- 사회복지소식 4·5면
청소년 문화예술멘토링·소식마당
1초의 쟁그림으로 사랑나눔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자원봉사 대토론회

탐 초·중·고 전문학원

학부모님들이 교육효과에 100% 놀랍니다.

(부설교육)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몰입교육
차일드 유 영어교실



원장 고 경 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온누리봉사회 초대 회장 / 손뜻모아봉사회 2대 회장

제주시 화북1동 1239-6

연락처, 722-3553, 721-8553, 017-691-3553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확대

둘째아 이상 지원 조건완화...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줄여

이달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아동 중 한명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줄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넘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단 부부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이 각각 180만원과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해 합산하면 435만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를 지원받고,

둘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70%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또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을 통해 보육료 재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가 줄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693명(두 자녀 이상 2267명, 맞벌이 가구 42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42억160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장애인복지관-장애아통합보육시설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은 2월 20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도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7곳과 장애아통합보육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교사들의 역량강화 및 장애아동 참여증진을 도모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자라는 질적인 통합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는다.

주요 사업은 ▲보육시설별 순회방문지원으로 장애아동의 통합보육환경에서의 일과 적응력 및 발달능력 촉진 ▲가정연계,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장애아동 부모역량 강화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선별진단으로 장애 조기발견, 적절한 중재 방안 모색 등이다.

한편 안양과화대학 유아특수 재활과 김수진 교수는 '장애아 통합보육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참가자 70여명으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취약계층 방문 이동상담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형편은 어렵지만 복지지원제도와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노인복지회관과 오일시장 등에서 '취약계층 찾아 나서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동상담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긴급복지사업 ▲희망

키움통장 사업 및 기금 부담보·무보증 용자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시책에 관해 상담을 벌인다.

또 2010년도 복지시책 달라지는 제도 홍보책자도 나눠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424명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230명에 대해 한시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원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제주도는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게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1종 질환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93개) 질환을 추가해 의료비 지원대상을 132종으로 확대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와 의료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희망 키우는 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5일까지 읍면동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5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해 민간 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 개설 대상으로 선정됐을 경우 대상자가 3년간 매월 저축을 하면 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저축을 하지 않는 달은 매칭금과 장려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월 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가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3만원과 매칭금 10만원이 더해져 총 33만원이 적립된다.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111만919원의 70%인 77만7643원 보다 많아야 한다.

적립금은 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전액 지급된다.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맞벌이부모 위한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워킹맘'의 육아문제 해결과 저출산 대책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은 인근 유치원간의 협력을 통해 야간 이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야간 유아 돌봄 서비스로, 맞벌이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제주시에는 한라유치원이, 서귀포시에는 예원유치원이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으로 지정돼 인근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이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전담유치원에는 유아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히 쉬 수 있도록 돌봄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된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용대상은 맞벌이 가정 유아 및 한부모 가정의 유아로, 일하는 부모가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는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과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이 있다.

맞춤형 임대사업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 가정,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소년소녀가장·친인척 위탁가정으로 월평균 소득이하 무주택자다.

임대조건은 50㎡ 기준으로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1만원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150

호, 전세임대주택 115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8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131호 등 313호를 공급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30,000	73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640,000	640,000
복지사업후원	865,000	174,600
푸드마켓후원	2,680,000	363,25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28)성안복지재단



섬김으로 제주를 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대표이사 고치웅)은 2006년 1월 제주시 아라동에 동지를 틀었다. 겨울이 저만치 멀어지는 듯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날, 섬김과 나눔으로 제주를 품고자 노력하는 성안복지재단을 방문했다.



‘섬김과 나눔’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설립된 성안복지재단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웃을 섬기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조손가정지원사업’이다. 성안교회 한 신도의 2억원 후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조손가정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후 조손가정 50가정에 생계비 지원, 개별 학습지도, 정서지원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의료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조손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10만원은 주로 조부모의 의료비와 손자녀의 교육비로 쓰이고 있다. 또 대학생 멘토 18명이 주 3회 학교를 방문,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성안복지재단의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 중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주지역대회다. 이 대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 아동의 권리를 사회에 알려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로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



“지역사회에 다가서고 도민들의 쉼터 역할 최선”

학년까지 참여해 제주대표를 선출, 서울지역대회에 참가한다. 아동들은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소외되고 외면당할 수 있는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과 정책적인 제안 등을 작성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제출하기도 한다.

또 성안복지재단의 성안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등급관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신체, 가사,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주 1회 밀반찬 제공, 김장

김치 나누기, 경로잔치 등 다양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고치웅 대표이사는 “법정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틈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곳을 향해 시선과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으며, 그래야만 저희가 제주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장애인자립 ‘꿈’ 이 ‘현실’로

기능보강사업 집중투자...양질 제품생산으로 이어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양질의 제품생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배움터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등 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지난해 매출액이 35억5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29억3800만원에 비해 21%가 오른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처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매출이 급증한 것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매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능보강사업이 양질의 제품생산과 꾸준한 판로망 개척 등으로 연결되면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

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11억6500만원에 달하며, 제주도는 올해에도 9억2300만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업체 및 군부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 주문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7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화훼 생산, 소시지·햄 생산, 제빵 및 케이크 생산, 종이컵 제작, 양초 및 샹페제작, 세탁업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수혜대상자 증가할 듯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돼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소득기준(4인) 204만원 이하, 부동산 등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월 93만3000원(4인 기준), 주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거비 월 33만3000원(4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의료비(입원시) 300만원, 중·고교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업료 등 교육비, 기타 해산·장제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주도 복지청소년과(710-2817) 또는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과(제주시 728-2472, 서귀포시 760-2534)로 하면 된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비 절감’ 효과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 위협 가능성을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는 1억원 이상의 재정절감도 이뤄져 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을 알고 불필요한 의료 소빙 등으로 건강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의료급여관리사 7명을 투입, 사전 정보제공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다 의료 이용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칭 주치의제도)를 확대해 올해 의료비 절감 목표액인 2억원을 반드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월 현재 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829세대 1만7832명이며, 1종 수급권자는 5872세대 9817명이다.

제주도 지역사회 르네상스를 꿈꾸며...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 '청소년 문화예술멘토링' 운영

세계 어느 역사나 산업경제의 부흥기 바로 이전에는 문화적 부흥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도 문화가 부흥한 후에 나라들이 부강해졌고 유럽의 산업혁명 앞에는 르네상스시대가 있었다. 이렇듯 모든 지식, 경제, 산업의 발전에 처음 영감을 제공하는 것은 미학적 영감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제주도의 문화적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들을 소개한다. 바로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단장 김정희)이 그들이다.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은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서비스 분야에 창의적인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와 제주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일환이다.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

소년 문화예술멘토링 사업'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으로 그쳐야 했던 도내 저소득층 및 농어촌의 아동·청소년 280명을 대상으로 성악, 피아노, 기타, 플루트, 바이올린 등을 33명의 전공자들이 분야별로 주 2회 일대일로 개별지도를 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노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찾아 방문음악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공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연말에는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어린이들의 그동안 갖고 닳은 기량을 맘껏 뽐내는 송년음악회를 열어 합창,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과 플루트 앙상블, 타악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송년음악회. 어린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갖고 닳은 기량을 맘껏 뽐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문화적 접근이 취약한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음악을 전공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서로 윈윈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성악과 피아노를 배운 고등학생 2명은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에 진학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를 받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는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장호진 사무국장은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한 것 같다"면서 "이제는 도심과 떨어진 읍·면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성 명예기자〉

고두승 아라복지관장 퇴임

고두승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2월 28일자로 퇴임했다.



고두승 관장은 8년여간 아라복지관 관장으로 재임하며 제주시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낡은 복지관 시설 환경을 쾌적하게 바꿨으며,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또 도내 기업체는 물론 CMS를 통한 후원자 발굴에 앞장서 열악한 복지관 재정을 개선하고 복지관 운영 및 사업 확충에 진력했다.

제작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전우옥씨와 1남.



평판프린터 등 최신장비도입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2월 1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된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판프린터 등 각종 최신장비를 도입했다.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번 최신장비 도입으로 상품의 품질은 물론 생산성이 높아져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재활용 가구 등 이용 리폼교실

가롤로의집은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는 '나무와 재활용품 가구 및 폐품을 이용한 리폼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활용품 가구 및 폐품, 친환경 제품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리폼을 함으로써 지적장애인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나무 가구 등 후원 문의=723-0245.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온도탑' 폐막식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2월 1일 광양사거리에서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온도탑' 폐막식을 가졌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 동안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을 통해 16억300만원(모금 목표액 16억원)을 모금, 11년 연속 집중모금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예년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모금 목표액 속에서도 도민과 기업들의 나눔정신을 발휘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모금액은 모든 기부자의 마음을 담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다.

박찬식 회장은 "연말연시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사랑들로 인해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뜨거워질 수 있었다"며 "다시 시작되는 연중모금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2010 설날 희망물품 나누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2월 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차장에서 2010 설날 희망물품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기업사회공헌과의 연계를 통해 세대간 지속적인 결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10kg 쌀 266포를 도내 소외계층에 지원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이동빨래 봉사활동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정아)는 2월 17일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연순희) 회원들과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에 살고 있는 혼자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대청소와 이동빨래 등 이동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는 교육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동빨래 봉사차량을 이용,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을 찾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랑의 쌀'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10kg 쌀 32포를 구입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32명에게 '사랑의 쌀'을 나눠줬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자녀 '온누리 배움터' 운영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한국마사회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사회성을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누리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어발달을 위한 학습지도,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구지도,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초의 찡그림으로 나누는 사랑

29년째 헌혈 진성협씨 제주최초 400회 기록

“고등학교 때 굉장히 건강했었고 어떤 종목에서도 만능선수였던 초등 학교 여동창생이 그만 재생 불량성 악성빈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동창회에서 헌혈캠페인을 벌였는데 저 또한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헌혈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9년째 헌혈해 오던 진성협(49)씨가 2월 6일 도내 최초로 400번째 헌혈을 달성하여 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줬다.

주사비늘이 두려워 도망다녔던 유년시절의 그는 옛말이다. 헌혈의 집 간호사들에게는 인기만점 ‘단골 손님’이다. 1997년 이전까지 2개월에 한번 헌혈을 하던 그는 지금은 2주에 1번 혈장·혈소판 등 성분헌혈을 하고 있다. 성분헌혈을 하려면 4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1년에 14회 정도 헌혈을 했지만 그의 수중에는 헌혈증서가 하나도 없다. 지인이 필요하다 해서 주고, 봉사활동을 다니며 헌혈증서가 필요한 사람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헌혈 400회를 기록한 진성협씨가 환하게 웃으며 헌혈을 하고 있다.

게 나눠줬다. 때로는 언론을 통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 물어 전하기도 했다. 헌혈을 하다 보니 ‘나눔’에도 눈을 떴다. 매년 헌혈하며 얼굴을 익힌 사람들끼리 만나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1993년 나눔적십자봉사회를 만들었다. 현재 그는 나눔적십자봉사회 회장이다.

봉사회는 매월 회의를 열고, 봉사활동을 고민한다. 매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독거노인방문, 소년소녀가장봉사활동 등으로 눈코 뜰새 없다.

헌혈은 주기적으로 하고, 방학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

진씨는 “방학이 되면 헌혈이 많이 부족하다”며 “부적격 사유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보다는 갖가지 이유로 헌혈을 기피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플루 영향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어 보유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헌혈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백혈병과 심장판막증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헌혈에 많은 도민이 참여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최소 5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남원읍사무소(읍장 현학수)를 매칭기관으로 선정, 동부지역 신청자는 동부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했다.



설명절 정(情)나눔 활동 실시

제주가정 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부터 13일까지 형편이 어려운 아동 204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정(情)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아동에게 장학금과 쌀·리면 등 물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격

려의 편지를 발송했으며, 상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을 펼쳤다.

이번 나눔 활동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폭낭회, 개인 후원자 등이 도움을 줬다.

“장애인장기요양제 본인 부담 확대 우려”

‘21세기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세미나’ 서김성완소장 주장

2011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장기요양방식으로 추진되면 장애인의 본인 부담은 커지고 서비스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완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2월 19일 서귀포시청 2층 대강당에서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로 열린 ‘21세기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 고찰을 위한 세미나(사진)’에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요양과 같은 보험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성완 소장은 “단순하게 활동의 제약에 대한 지원문제로 본다면 장애인과 노인은 큰 차이가 없을 지 모르지만 노인은 생애주기에 있어 정리기이며, 장애인은 생애주기 모든 과정에 있다”면서 “장애인은 삶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갖고 싶어하며, 단순한 장기요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노인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 영역에 비해 장애인에게는 훨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각기 장애유형이 다르다보니 관리운영체계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또 “활동보조사업은 독거특례의 경우 월 최대 1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월 최대 120시간으로 한정돼 있다”며 “부담금도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 이외는 월 4만원인데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부담이 15%나 된다”고 했다.

이어 “장애관정에 있어서 적합한 모형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판정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적수손상장애인의 경우 하지마비로 인해 전혀 이동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 수 없으나 양손 사용이 가능해 물건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조건으로 판정돼 시간이 축소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이라는 틀을 유지하더라도 장애인문제와 노인문제의 차별화에 기인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제주바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2월 18일 (주)대국해저관광(회장 김용이)의 지원을 받아 서귀포시 관내 학대피해아동 전담 그룹인 ‘아이요름’의 아동과 함께 제주바다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대피해아동들이 서귀포 잠수함 ‘지아호’에 승선해 문섬 주변 바다 체험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높이고 심리·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 아동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천사의집 음식품평회·만남의날

천사의 집(원장 김성수)은 2월 22일 천사의 집 원아 및 지도교사, 관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천사의집 음식품평회 및 퇴소아동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서부복지관 이종범 관장 도사회복지관협회장 선출

이종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이 제4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에 선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는 2월 10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종범 관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종범 회장은 “한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제주 사회복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10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칼럼

복권! 그 사행과 공익의 두 얼굴



문 익 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 소년과장

‘복권’ 하면 연상되는 것이 인생역전이다. 물질적 풍요의 성취 심리와 신분상승 기대감이다. 복권과 인생역전의 등식은 부를 갈구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기인하는 장래의 기댓값이다. 어쩌면 기대에 우연을 노린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

주택복권이 정기복권시대 열어

복권 구입은 공립 탈출을 위한 경제적 기대감과 여유심리일 게다. 당첨보장은 없지만, 혹여 당첨되어 억만장자가 된 듯 착각하는 자가당착적 꿈은 자유일 터. 복권 구입의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일확천금의 꿈은 단연 사행심이 틀림없어 보인다.

사행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기인하며, 한 번의 실패에 국한되

지 않는다. 지속성과 중독성도 내포한다.

이 순간에도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감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을 게다. 이러한 기대심리는 일상에 재화부족을 절실히 체감하는 고달픈 서민층에 많이 잠재되어 있겠지. 그래서 복권을 구입하는 계층도 주로 서민층으로 짐작이 된다.

근세의 복권은 1947년 올림픽 후원권의 발행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몇 차례 발행되었으나 지속성은 없었다. 1969년 국민주택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주택복권의 등장으로 정기발행복권시대가 열렸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관광개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관광복권을 발행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다른 지방에서도 공익수요 재원마련을 위해 자치복권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기술복권, 기업복권이 발행되었으며, 1999년 녹색복권이 발행되어 바야흐로 복권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복권발행의 효시가 정부인 것이 아이러니하다. 사행성의 폐해를 막고 공익추구에 진력해야 할 정부이기에 말이다. 하지만, 복권의 본질에 사행성은 있

나 판매기금은 철저히 공익사업에 투자된다. 복권의 사행성과 공익성의 모순된 가치를 재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복권기금, 공익수요재원에 사용

정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복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적절히 운영·관리하기 위해 10개의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했다. 복권의 종류도 인쇄복권 4종, 전자복권 7종, 온라인복권 1종으로 축소했다. 또한 법률 제정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복권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집행한 생활보장사업만 하더라도 국·도비와 함께 복권기금 1084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참여자 등 2만5200여명의 생계·주거비로 사용됐다.

복권기금은 우리 지역의 불우한 이웃, 경제적 취약계층의 공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권의 사행성을 공익적 기금으로 전환하여 철저히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일, 오직 공공행정이 감당해야 할 고유영역이라 여겨진다.

시론

시끄러운 세상 속 미소한 줄기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세종시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찬성과 반대, 중립으로 구분된 주장들은 각자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한 대안이라고 힘주어 말하면 않는 모습은 정치인들의 자화상이 된지 오래다. 연일 이어지는 독설과 난투극 속에 국민들은 성숙한 정치에 대한 기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지쳐가고 있다.

이렇듯 사안에 대한 대안들이 양극단의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제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하여 구분지어 경계하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타인 아닌 자신의 벽 우선 허물어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어 여러 대안과 주장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나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가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문제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논쟁은 다양하게 제시되는 대안들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며 경청할 수 있게 한다. 구성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 합의점에 이를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 수용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경계하는 행위는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 차별은 왜곡된 경쟁을 부추겨 경계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어 구분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성차별, 연령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등은 우리사회가 허물어야 하는 대표적인 구분과 경계이다. 우리가 경계를 허물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이 보인다.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모든 도미노가 무너져야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벽에 가려졌던 상대방이 보이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므로 웃을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보이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 상대방을 표적으로 하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둔 성장을 하게 된다.

진정한 경쟁은 자신을 극복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 안의 나와 경쟁할 때 자신의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비에도 스스로를 믿어주며 즐겁게 넘길 수 있게 된다. 과정에서의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만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법을 들으려 하고 더불어 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선 굵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놓인 많은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당익보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함께 고민하는 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국민들은 외면했던 시선을 돌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기대와 희망으로 미소지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벽을 건드리려 하지 말고 나부터 내 도미노의 벽을 허물어보자. 이 작은 시작이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기고

‘행복e음’ 첫 복지급여 87억원 지급



고 정 렬

제주주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착실히 준비, 기존 새울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하던 복지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전 데이터를 사통망으로 전환하여 초기자료로 구축,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복지대상자별 자료에 대한 방대한 정비작업을 벌여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개통 이후 1월 20일과 25일에 첫 복지급여가 지급됐다.

1월 20일 복지수급자 2만 4000여명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3억여원의 급여가 수급

자계좌에 입금됐으며, 1월 25일에는 4만1000여명에게 24억원의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지급됐다.

지급 이후 급여 대상에서 계좌번호 오류 및 전산 오작동으로 일부 가구에 대해 민원이 다소 발생했으나 소명 기회를 통하여 적절하게 복지급여가 추가 지급됐다.

그동안 120여종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6만5000여명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비한 결과 70여명에 급여 증감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가 중지될 가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 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나갈 것이다.

연계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영유아보육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제주시는 수급대상자에서 변동된 사람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을 받아 구제를 해줄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그동안 사업별로 별도로 관리되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종전 10개 기관 15종에서 27개 기관 215종의 공적자료를 지원받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통 초기 기능오류와 처리미숙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행복e음을 통하여 시민 측면에서는 편의성·신속성·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 측면에서는 복지수급자를 개인별·가구별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 1인 1계좌 급여지급 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담당자의 횡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복지에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서비스는 행복e음을 통하여 시민을 아우르는 예방정책,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제들이 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토론회

“일상생활 토대로 자원봉사 범주 확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2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이성록 한국자원봉사개발원장이 주제발표한 ‘10만 자원봉사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단체의 역할’을 정리했다.



△2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새로운 10년, 10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 등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업적중심 접근 지양...풀뿌리 자원봉사운동 요청

*양적 성장을 위한 과제

▲실질적 자원봉사 총량 증대

제주도 자원봉사자 가운데 1년에 한번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36.4%, 50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는 10.1%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소위 ‘100만 자원봉사’ ‘50만 자원봉사’라는 식의 업적중심의 접근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접근방식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 에너지의 총량을 극대화시키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진정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본은 실질적 자원봉사 에너지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자원봉사 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들어오는 문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나가는 문도 잘 관리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증대시키는 노력에 앞서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인구계층별 참여 촉진 방안 수립

통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구성비를 고려할 때 연령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참여율이 역U자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와 남성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동시에 연령계층별 참여경향을 분석해 볼 때 30대 인구계층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남성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 수립 △육아 중인 젊은 주부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 서비스 등 제공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확대 △고령인구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추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사회적 행동이다. 최근 자원봉사 주체들간 배타성이나 칸막이효과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수행조직들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양보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구조이다. 시너지효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기업,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적성숙을 위한 과제

▲이슈 중심에서 일상생활 중심으로 전환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범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은 일상생활의 충실을 배경으로 하여 환경, 문화, 교육 등의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에 따라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각되는 이슈에 따라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특정분야에 편중된 활동은 자원봉사·비영리조직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인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의 범주 확대는 우리의 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자원봉사의 생활화에 요구되는 기본요소가

다. 그러나 자원봉사 대상영역을 다변화하는 범주 확대가 단순히 분야의 확대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범주 확대의 기본전제는 이슈중심에서 생활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관점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기점으로 하여 활동분야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을 토대로 활동범주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단위에서 동네중심으로 전환

광역단위의 거대 조직보다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이 중심돼야 한다. 과거 자원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광역단위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더 이상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내 동네문제를 팽개치고 남의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있으니 이는 결국 ‘시장논리’에 기인한 것이다.

생활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 괴리감을 갖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단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 주체로서 귀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풀뿌리 자원봉사운동이 요청되고 있다.

▲조직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

조직중심의 활동에서 지역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돼야 한다. 즉 조직을 우선하여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우선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라면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십자 등과 같은 큰 조직뿐만 아니라 작은 풀뿌리 조직들 역시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갖는다.



제주 물 스토리텔링 공모

"제주 물과 건강 그리고 장수"

공모기간

2010. 2. 1 ~ 3. 29

공모주제

"제주 물과 건강 그리고 장수" 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제주 물의 우수성을 제주의 자연, 환경, 역사, 설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공모분야

"제주 물과 건강 그리고 장수" 라는 주제의 이야기 창작물
연극,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희곡, 대본, 시나리오

응모자격 및 출품수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단독 또는
공동 출품 가능(기업체 포함), 출품수 제한없음

시상 및 상금

분 류	시상인원	상 금
대 상	1명	3,500만원
최우수상	1명	500만원
우 수 상	2명	300만원
장 려 상	4명	100만원

접수방법 및 문의처

직접제출 및 우편(택배) 제출 (우편제출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문의처 | 홈페이지(www.jpdc.co.kr) 및
(064)780-3433, 3435 스토리텔링 담당자

심사발표

| 심사및발표 | 2010. 4월 중
| 시 상 식 | 2010. 5월 중

자세한 내용은 www.jpdc.co.kr에서 확인하세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